



미국 상장 중국기업에 대한 단체소송 급증과 임원배상책임보험 보험료 상승

왕양비 연구원

■ 미국에서 우회상장한 중국기업의 회계결합, 회계사기 등의 문제로 2011년 상반기 미국 상장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집단소송이 22개에 달하면서 전체 증권 관련 집단소송 건수의 25%를 차지함.

- 기업공개(IPO)를 통해 미국에서 상장한 일부 실적 및 재무상태가 양호한 중국기업들과는 달리, 상당수의 중국기업들은 엄격한 실사작업을 거치지 않는 역인수합병(RTO)을 통한 우회상장을 선호하였음.
 - 최근 3년간 미국에서 상장한 중국기업 중 우회상장한 기업은 159개사로 기업공개로 상장한 기업(56개사)에 3배가 됨에도 불구하고, 우회상장한 기업의 시가총액은 128억 달러로 기업공개로 상장한 기업의 시가총액(272억 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 올 3월부터 미국 상장 중국기업의 회계결합 문제와 회계감사를 맡았던 회계감사업체의 사기혐의가 잇달아 드러남에 따라 19개사에 달하는 회사의 증권거래가 일시중지 또는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6월 나스닥 중국주 주가가 14% 폭락하고, Halter USX China지수도 10% 하락함.
- 이에 따라 중국주 폭락에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미국 상장 중국기업의 회계결합과 정보공개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 단체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도 해당 회계감사업체를 조사함과 동시에 중국기업의 역인수합병 등에 관한 상장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해외상장하는 중국기업이 보다 엄격한 감독을 받는 추세 속에서 임원배상책임보험(Directors&Officers Liability Insurance)의 담보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임원배상책임보험 보험료도 급증함.

- 올 상반기 중국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보험료도 10~20% 상승하였으며, 미국 진출기업의 보험료는 2010년 말에 비해 2배에 이름.
- 보험 중개업체 Marsh의 중국담당 CEO는 2011년 이래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누적 수입보험료가 미국에 상장하는 중국기업에 대한 배상요구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임원배상책임보험 보험료가 급등한 것으로 밝혔으나, 이번 단체소송 사태가 끝날 무렵에는 보험료가 다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

■ 아직까지 중국기업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낮은 수준이지만, 중국기업에 대한 해외 금융감독 강화로 인해 임원배상책임보험 시장이 커질 전망이다.

- 현재 중국의 임원배상책임보험 보험료가 해외보다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느슨한 중국 금융감독시스템으로 인해 중국기업들의 가입률은 10% 수준으로 저조함.
- 그러나 향후 중국기업에 대한 해외 금융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 해외진출 중국기업의 임원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됨.

■ 현재 중국의 임원배상책임보험 업무는 국제 업무 경험이 많은 외자계 회사들만 취급하고 있어 임원배상책임보험시장의 확대는 중국 보험회사보다 외자계 보험회사의 실적에 더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됨.

(탕쉐ن 재경 6/27, WSJ 6/20 등)